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임 남 영[†] · 강 승 희*

오산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The Effect of Clothing Type and Hair Style on Men's Impression Formation

Nam-Young Im[†] and Seung-Hee K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Osan Colleg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11. 12. 접수: 2003. 5. 3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lothing type and hair style on men's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4×2×2×2 (clothing type×hair style×perceiver's age×perceiver's role) factorial design with between-subjects design. The stimuli of color photographs of male in his 20's model and semantic differential scale were used.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881 men and wome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SPSS package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s factor analysis, t-test, and Cronbach's α to measure the reliability.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our factors were deriv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s of impression formation. These were dignity, activity, individual character, and social intercourse. Men evaluated individual character factor higher than women did. Dignity factor was evaluated higher by students, while social intercourse factor was evaluated higher by office workers. The clothing type of shirts/pants was evaluated to be more active and more sociable than of jacket/pants. Men wanted to exhibit natty image and women did elegant image through clothes.

Key words: clothing type(의복유형), hair style(머리형태), impression formation(인상형성), perceiver's age(지각자의 연령), perceiver's role(지각자의 역할).

1. 서 론

남성 의복은 뚜렷한 의복규범 속에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착용되는 의복유형도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는 형식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트렌드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던 분위기에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 발상으로 조합, 창조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패션을 연출하는 다양함이 보여지고 있다¹⁾.

남성 소비자 의복 실태 분석에 의하면 방송, 광고, 패션 등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캐주얼웨어

[†] 교신저자 E-mail: nykim@osan.ac.kr

1)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착장법 연구 I", 텍스헤럴드, 2000년 9월 4일, p.23.

2) "남성소비자를 주목하라", 섬유저널(Texjournal), 1995년 4월, p.379.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²⁾, 온 타임과 오프 타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옷, 즉 캐주얼 웨어 붐이 가속화되고 있다³⁾.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하여 세계적인 트렌드의 흐름이 캐주얼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에 발맞춰 많은 의류브랜드들이 보다 편안하고 실용성을 갖춘 상품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⁴⁾.

SHRM(Socie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은 '99년 조사에서 미국 750개 업체의 42%가 매일 캐주얼웨어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⁵⁾, 우리나라 일부 회사에서도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정해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게 하고 있다⁶⁾.

의복 다음으로 개인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헤어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졌으나, 성역할 구분의 감소 등으로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독창성이 중요시되면서 의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어지고 있다⁷⁾. 인체의 전체 크기로 볼 때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는데 비해 그 영향은 의복과 맞먹을 정도이므로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⁸⁾.

아직까지 헤어스타일은 의복에 따르는 부수적 복식분화로 인식되고 있으나 의복보다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하며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의류시장에서 중요한 소비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캐주얼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남성복 산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남성복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형성의 차원을 분류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을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복과 인상 형성

의복은 의도와 아울러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자에 대한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복은 착용자가 누구인가를 전달해 주는 무언의 언어 또는 무언의 상징이라고 부른다⁹⁾.

Bell¹⁰⁾은 여성복에 한정되어온 의복 변인을 남성복으로 바꾸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격식차림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수적 스타일은 지적으로, 대담한 스타일은 사교적으로 평가하였고 캐주얼 스타일은 인기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김영인¹¹⁾은 성인 남성에게 있어 정장 의복을 주로 착용하는 사람은 정열적, 사교적 특징을 지니며, 캐주얼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권위적이지 않는 성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은미¹²⁾는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3) "주목! Men's market", *섬유저널(Texjournal)*, 1996년 3월, pp.110-115.

4) "편안·실용성으로 최고 전성기 구가", *한국섬유신문*, 2002년 1월 3일 p.21.

5) "미 직장인 워크웨어 붐", *패션비즈(Fashionbiz)*, 2000년 8월, pp.144-145.

6) "캐주얼웨어 제대로 입어야 멋진 男", *중앙일보*, 2002년 5월 10일, p.51.

7)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p.57.

10) E. L. Bel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0 No 1 (1991), pp.8-12.

11) 김영인, "남성복 정장 스타일유형에 의한 세분된 소비자 집단 간의 특성 비교: 생활양식, 의복 행동 및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유통학회지* 14권 2호 (1994), pp. 137-151.

12) 이은미,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데 남성 정장차림은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비언어적 단서로 사용되며, 의복의 세부적 측면, 즉 정장색, 넥타이 색 등과 착용자의 연령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미우, 강혜원¹³⁾의 연구에서는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켜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유행색 여부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선경¹⁴⁾은 남성 의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의복유형은 지적, 매력적 인상에서 영향이 컸으며 인물의 특징과 의복유형의 특징은 매력성, 성공성 평가의 단서가 되며 직업적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송선옥, 이인자¹⁵⁾의 남성의 인상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유형은 활동성에 영향을 주고, 얼굴형은 친숙성, 체형은 멋스러움과 강인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김현지¹⁶⁾의 연구에서는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 중 감색 재킷이 회색과 검정색 재킷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셔츠는 흰색이 파랑색보다 더 친근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넥타이는 감색이 친근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빨강색은 역동성, 노랑색은 사교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헤어스타일과 인상형성

Peterson과 Curran¹⁷⁾은 남성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cer와 Meindl¹⁸⁾은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나광주¹⁹⁾에 의하면 의복이 53.33%, 헤어스타일이 44.67%로 의복이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의 전체 크기로 볼 때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는데 비해 그 영향은 훨씬 크다고 하였다. 문영보, 이인자²⁰⁾의 연구결과 헤어스타일은 지적 인상형성에 주요과는 없었을지라도 외모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지적 인상형성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도주연²¹⁾의 연구에 의하면 짧은 머리는 개성적 이미지에, 중간 머리와 긴 머리는 세련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머리는 현대적, 도시적, 적극적인 얼굴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긴 머리는 여성적, 자연스러운 얼굴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윤소영²²⁾의 연구에 의하면 긴 머리는 호의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주고, 단발머리는 세련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임희정²³⁾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타인에게 단정하고 현대적으로 보이길 원했으며, 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변화

- 13) 남미우, 강혜원,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권 3호 (1994), pp.311-326.
- 14) 이선경,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5) 송선옥, 이인자,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2001), pp.369-378.
- 16) 김현지,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7) K. Peterson & J. P. Curran,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2 (1976), pp.331-339.
- 18) S. M. Pancer & J. R. Meindl, "Length of hair and beardless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1978), pp.1328-1330.
- 19) 나광주, *Op cit.*
- 20) 문영보, 이인자,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1993) pp.17-30.
- 21) 도주연,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2)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3) 임희정,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영동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시킨다고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싫증이 나서 바꾸며 2~3개월에 1회 정도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하였다.

3. 지각자와 인상형성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지각할 때 같은 의복이라도 지각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각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요구, 기대가 각각 다르고 또한 판단 기준이 다르며 지각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²⁴⁾.

Rosencranz²⁵⁾는 투사법에 의하여 의복에 대한 지각을 연구한 결과 사회 경제적 수준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남, 여 모두 의복인지도가 높고, 여자의 의복인지도가 남자보다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각자 판단의 정확, 부정확에 상관없이 지각자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타인들을 지각하였다. Delong, Salusso-Deonier와 Larz²⁶⁾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평가적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무복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사교복은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방희선, 고애란²⁷⁾의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중 연령이 성별과 거주지보다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에 의한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Bell²⁸⁾은 젊은 층은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노년층은 격식 차린 또는 보수적 스타일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경²⁹⁾은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여성 지각대상자의 인상형성을 연구하였는데, 남자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어 50대는

남성적 형태의 분홍색을, 20, 30대는 남성적 형태의 감색 슈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의복으로 지각하였다. 이은미, 강혜원³⁰⁾은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의복 착용자의 연령, 의복단서,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40, 50대 관찰자 집단이 20대 관찰자 집단보다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김인숙, 신소진³¹⁾은 남녀 대학생を対象으로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캐주얼 복장에 대한 연구에서 노출차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예의·정숙성을 좀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항미³²⁾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인상차이는 평가적 차원, 사교적 차원, 역동적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3차원 모두에서 더 좋게 평가하였다. 송선옥, 이인자³³⁾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멋스러움과 강인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 및 측정도구,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극물 제작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설계(between-su-

24) 강혜원, *Op cit.*

25) M. L. Rosencranz, "Clothing symbol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4 No. 1 (1962), pp.18-22.

26) M. R. Delong, C. Salusso-Deonier & K. Larz,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 4 (1983), pp.327-336.

27) 방희선, 고애란,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1호 (1999), pp.1-17.

28) E. L. Bell, *Op. cit.*, 1991.

29) 김광경, 남성적,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30) 이은미, 강혜원,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197-210.

31) 김인숙, 신소진,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복장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1994), pp. 501-514.

32) 이항미,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3) 송선옥, 이인자, *Op cit.*

bjects)이며, 요인설계는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4요인설계로서 4(의복유형)×2(헤어스타일)×2(지각자의 성별)×2(지각자의 역할)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재킷에 바지, 남방에 바지를 착용한 20대 중반의 남성의 모습이다.

1) 모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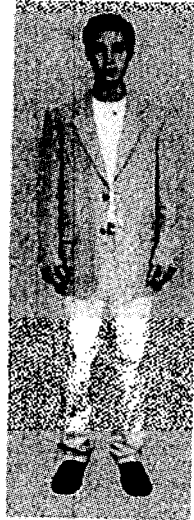
자극물 속의 지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남자 대학생 중 표준형 얼굴과 표준 체형 범위의 신체 조건을 가진 남성을 20대 중반의 연령층에서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동일한 자세로 얼굴 중심의 인물 사진을 촬영하였다(4×5cm의 크기). 이 모델의 얼굴 사진을 판단집단에게 보여주고 각 모델의 표준형 인상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판단집단은 의류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40명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가장 표준형 인상이라고 평가된 모델을 1명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키는 183cm, 몸무게는 78kg이었다.

2) 의복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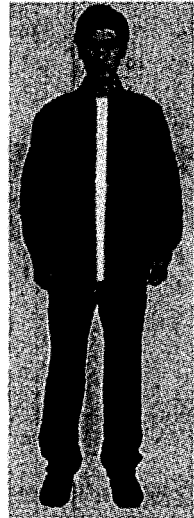
의복 선정을 위해 2000년 봄부터 2001년 봄까지 국내 패션잡지, 캐주얼 브랜드 카탈로그 및 백화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복들을 토대로 조사하여 의복 유형을 수집하였다. 의복은 상의(2가지)와 하의(2가지)로 나누었다. 상의는 캐주얼 재킷과 남방셔츠 2종류로 분류하여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재킷과 남방의 안에는 흰색 라운드 넥라인 면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며, 하의는 청바지, 면바지의 2종류로 구성하였다. 신발은 검정색 캐주얼 구두를 착용하였다.

3) 자극물 제작방법

모델은 청바지에 재킷과 남방셔츠, 면바지에 재킷, 남방셔츠를 착용한 4가지 경우를 촬영하였다. 모델은 서 있는 모습으로서 지각대상자의 자세, 표정을 일정하게 하며, 뒤 배경은 무채색으로 통제하였다. 사진은 전신 모습으로 6×17cm의 크기였다. 자극물은 상의(2), 하의(2), 헤어스타일(2)로 변화를 주어 총 8종류의 칼라출력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재킷/면바지를 착용한 자극물이고, <그림 2>는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남방/청바



<그림 1>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재킷/면바지 착용.



<그림 2>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남방/청바지 착용.

지를 입은 자극물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극물 인상차원에 대해서 25 문항과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에 대한 1문항,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에 대한 척도는 의미미분척도로서 자

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96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의복과 헤어스타일이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34~37)}에서 적절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총 25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에 대한 문항은 자극물의 인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시된 25개 형용사 중에서 한 가지를 기입하게 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지각자의 성별과 역할로, 역할은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8개의 자극물에 대하여 각각 30명 내외로 응답하게 하여 896명에게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881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01년 5~8월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사원비량분석, 빈도분석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표 1>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요인 1. 품위	요인부하량	요인 2. 활동성	요인부하량
점잖은-점잖지 않은	.79	캐주얼한-포멀한	.76
품위 있는-품위 없는	.78	보기 좋은-보기 싫은	.69
예의 바른-예의 없는	.72	활동적인-비활동적인	.64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7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61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69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57
신중한-경솔한	.69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54
차분한-요란한	.61	세련된-촌스러운	.49
유능한-무능한	.60	답답한-편안한(R)	-.47
전문적인-전문적이지 않은	.52		
변량 = 28.96% 고유치 = 6.95		변량 = 16.56% 고유치 = 3.97	
요인 3. 개성	요인부하량	요인 4. 사교성	요인부하량
개성 있는-개성 없는	.75	사교적인-비사교적인	.69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75	적극적-소극적	.66
남들과 다른-남들과 비슷한	.72		
무난한-무난하지 않은(R)	-.46		
노련한-미숙한	.44		
변량 = 8.95% 고유치 = 2.15		변량 = 4.67% 고유치 = 1.12	

(R): 거꾸로 채점

34) 김광경, *Op cit.*
 35) 남미우, 강해원, *Op cit.*
 36) 이은미, 전개논문, *Op cit.*
 37) 이향미, 전개논문, *Op cit.*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 평가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최소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각 요인에 묶여진 문항의 등질성도 함께 검토되어졌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결정된 내용과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점잖은', '품위 있는', '예의바른', '지적인' 등의 형용사 내용이 포함되어 품위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28.9%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캐주얼한', '보기 좋은', '활동적인', '자신감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의 16.5%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개성 있는', '눈에 띄는', '남들과 다른' 등의 내용으로 개성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8.9%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사교적인', '적극적'과 같은 형용사를 포함하여 사교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의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4 이상이었고, 요인 4까지의 누적변량은 59.13%였다.

인상형성 요인으로 추출된 4개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조사하였다.

<표 2> 인상형성요인에 대한 성별, 역할, 의복유행 및 헤어스타일의 사원변량분석 (N=856)

변량원	df	품위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성별(A)	1	.50	2.46	74.82**	2.00	
역할(B)	1	16.23**	10.85**	13.68**	7.26**	
의복유행(C)	3	24.96**	36.84**	28.64**	17.93**	
헤어스타일(D)	1	10.73**	23.00**	14.25**	12.42**	
A×B	1	.15	.49	1.81	.08	
A×C	3	1.51	.72	1.05	1.80	
A×D	1	.02	1.33	.01	2.80	
B×C	3	1.27	3.70*	.72	.68	
B×D	1	2.06	.21	.19	6.64**	
C×D	3	.27	1.23	2.23	.96	
A×B×C	3	2.02	2.48	.57	1.72	
A×B×D	1	2.13	1.35	.03	1.22	
A×C×D	3	2.42	1.81	.16	1.43	
B×C×D	3	3.07*	.82	3.66*	1.19	
A×B×C×D	3	.91	.59	.15	.56	
오차		824				
독립변인	내용	N	M	M	M	M
성별	남	418	3.95	3.50	4.00	3.41
	여	438	3.91	3.57	4.67	3.49
역할	학생	408	3.81	3.58	4.50	3.57
	직장인	448	4.05	3.49	4.21	3.35
의복 유행	재킷+청바지	216	3.93(b)	3.65(b)	4.80(c)	3.74(b)
	남방+청바지	206	4.23(c)	3.34(a)	4.41(b)	3.17(a)
	재킷+면바지	214	3.52(a)	3.82(c)	4.45(b)	3.74(b)
	남방+면바지	220	4.05(b)	3.33(a)	3.75(a)	3.16(a)
헤어 스타일	스포츠형	443	3.83	3.43	4.19	3.32
	일반형	423	4.03	3.65	4.50	3.59

* $p < .05$, ** $p < .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결과($p < .05$).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의 값이 각각 .86, .83, .76, .68로서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 요인은 각 요인의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과 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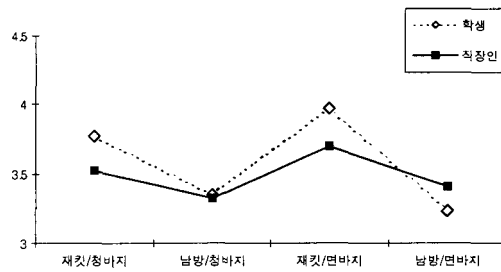
2. 성별, 역할, 의복유형 및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요인의 차이

〈표 2〉는 지각자의 성별, 지각자의 역할, 의복유형 및 헤어스타일이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4가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독립변인(성별,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의한 주효과를 보면 품위, 활동성, 사교성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개성 요인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개성 요인은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가 자극물의 의복을 더 개성 있게 평가하였다.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은 4개 요인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역할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직장인은 자극물의 의복을 활동성, 개성 및 사교성 요인에서 학생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고, 학생들은 품위요인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의복유형은 재킷/면바지 유형이 가장 품위 있게 평가되었고 남방/청바지는 품위 없게 평가되었다. 남방/면바지의 의복유형은 개성적으로, 재킷/청바지 유형은 개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남방/면바지와 남방/청바지는 재킷/면바지, 재킷/청바지보다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평가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스포츠형이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4개의 인상차원 모두에서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직장인은 캐주얼웨어의 의복 유형을 학생보다 활동적이고 개성적이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하나 품위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인상형성의 모든 요인은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활동성 요인과 사교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3개의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품위요인과 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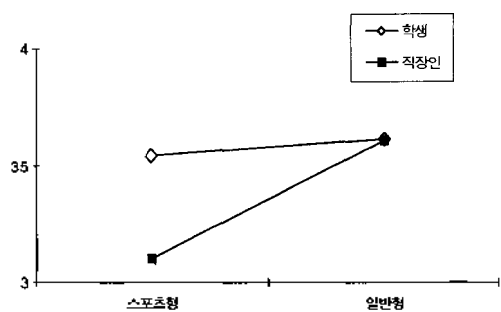


〈그림 3〉 활동성요인에 대한 역할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형태.

요인에서 나타났다. 각각의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3~6〉과 같다.

활동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역할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3〉과 같다. 학생은 남방/면바지 유형을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하였고, 직장인은 남방/청바지의 의복유형을 활동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재킷/면바지 유형은 두 집단 모두에서 활동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남방셔츠는 캐주얼 재킷보다 두 집단 모두에서 활동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학생은 면바지를, 직장인은 청바지를 더 활동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송선옥, 이인자³⁸⁾의 연구에서 의복유형은 활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교성 요인은 역할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이 일반형의 헤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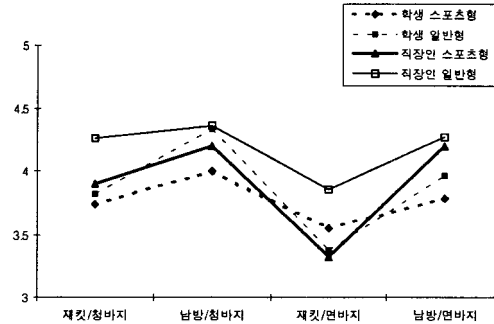


〈그림 4〉 사교성 요인에 대한 역할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형태.

38) 송선옥, 이인자, *Op cit.*, (2001), pp.369-378.

타일보다 사교성 요인이 높게 지각되었다. 특히 직장인이 학생들보다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더 사교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헤어스타일에 따라 사교성의 인상 차원을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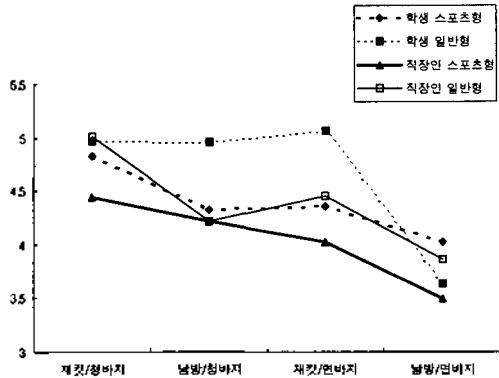
품위요인에 대한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학생은 재킷/청바지, 남방/청바지 및 남방/면바지 의복유형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했을 경우 품위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재킷/면바지는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일 경우 품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5> 품위요인에 대한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형태.

<표 3>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에 대한 분포

문항	남자		여자	
	n(%)	순위	n(%)	순위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6(1.5)	17	3(0.7)	23
신중함 - 경솔함	0(0.0)	25	1(0.2)	25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8(2.0)	16	7(1.5)	16
예의바른 - 예의 없는	10(2.5)	14	8(1.8)	13
적극적 - 소극적	2(0.5)	23	4(0.9)	20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3(0.8)	22	5(1.1)	19
유능함 - 무능함	11(2.8)	12	15(3.3)	9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10(2.5)	14	11(2.4)	12
무난함 - 무난하지 않은	25(6.3)	7	8(1.8)	13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38(9.6)	3	26(5.7)	5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 않은	13(3.3)	10	15(3.3)	9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18(4.6)	9	24(5.3)	6
노련함 - 미숙함	6(1.5)	17	4(0.9)	20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6(1.5)	17	6(1.3)	17
세련됨 - 촌스러운	35(8.9)	4	101(22.3)	1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12(3.0)	11	54(11.9)	2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43(10.9)	2	19(4.2)	8
점잖은 - 점잖지 않은	4(1.0)	21	1(0.2)	25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0(0.0)	25	4(0.9)	20
깔끔함 - 깔끔하지 않은	48(12.2)	1	51(11.3)	3
답답함 - 편안한	24(6.1)	8	13(2.9)	11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31(7.8)	5	36(7.9)	4
캐주얼함 - 포멀함	11(2.8)	12	8(1.8)	13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26(6.6)	6	23(5.1)	7
차분함 - 요란함	5(1.3)	20	6(1.3)	17
합계	395(100.0)		453(100.0)	



〈그림 6〉 개성요인에 대한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형태.

직장인은 모든 의복 유형에서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더 품위 있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개성요인에 대한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6〉과 같다. 개성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직장인의 경우 모든 의복 유형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개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재킷/면바지에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 학생이 직장인들보다 개성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남방/면바지의 경우 직장인은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학생은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을 개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성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성별과 역할에 따라 인상을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3.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

25개의 양극 형용사에 대해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인상에 대해 각 형용사의 분포와 순위를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남자의 경우는 깔끔한(12.2%)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정한(10.9%), 자연스러운(9.6%), 세련된(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세련된(22.3%) 이미지를

가장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적인(11.9%), 깔끔한(11.3%), 자신감(7.9%)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며 지적인 외모에 대한 선호와 열망이 크고 자기이미지도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한 김양진³⁹⁾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같은 의복유형의 경우,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더 품위 있게 평가한 남, 여 모두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취업 증가, 유니섹스의 캐주얼웨어로 인한 의복 구분의 모호함과 성역할 구분의 감소 등의 결과로 보여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남성의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형성의 차원을 분류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조사하며,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인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주얼웨어를 착용한 남성의 인상형성에 대한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별,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은 각 독립변인에 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면바지에 재킷차림이 가장 품위 있게 지각되었고 남방/청바지는 품위는 낮았으나 활동성과 사교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한편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스포츠형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극물에 대해 지각하는 성향이 비슷하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개성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역할에 따른 인상형성 지각에도 차이가 있어 학생이 직장인보다 자극물을 더 품위 있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교성 요인은 역할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학생은 헤어스타일에 따라 모든 의복유형에서 비슷하게 지각하였으나, 직장인은

39) 김양진,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헤어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였다.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외모에 대해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직장인 집단과 학생 집단이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외모의 평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 집단은 남방/면바지의 의복유형을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직장인은 남방/청바지 의복유형에 대해 활동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학생 집단은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에 재킷/면바지를 착용한 경우 가장 품위 있게 지각하였으나 직장인은 스포츠형이고 재킷/면바지를 착용한 경우 더 품위 있게 지각하였다. 학생 집단은 남방/면바지에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을 개성적인 외모로 평가하였으나 직장인 집단은 남방/면바지에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을 개성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라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인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는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12.2%), 다음으로 단정함(10.9%) 이미지였다. 여자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장 원하였으며(22.3%), 다음으로 지적인(11.9%), 깔끔한(11.3%)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인상형성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성을 대상으로 캐주얼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을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한 연구가 요구된다. 캐주얼웨어라는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한 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을 평가한 피험자내 설계이므로 연구 결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김광경 (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 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진 (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안 (1994). "남성복 정장 스타일유형에 의한 세분된 소비자 집단 간의 특성 비교: 생활양식, 의복 행동 및 외모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권 2호.
-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린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 김현지 (2003).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 (1993). "20세기 서구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권 3호.
-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보, 이인자 (1993).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 방희선, 고에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1호.
- "남성소비자를 주목하라" (1995. 4) *섬유저널*.
- "주목! Men's market" (1996. 3) *섬유저널*.
-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 (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 (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 이향미 (1995).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정 (2001).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영동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캐주얼웨어 제대로 입어야 멋진 男." (2002. 5. 10) *중앙일보*.
-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착장법 연구 I." (2000. 9.

- 4) 텍스해럴드.
 “미 직장인 워크웨어 붐.” (2000. 8) *패션비즈*.
 “편안·실용성으로 최고 전성 (2002. 1. 3) *한국섬유신문*.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0 No. 1.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 4.
 Pancer, S. M. & Meindle,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less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Peterson, K. & Curran, J. P.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Rosencranz, M. L. (1962). Clothing symbol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4 No. 1.